

## UNECE, 완전자율주행차 허용을 위한 세계 최초 국제 규정 채택

| 해당국가 | 글로벌 | 기관(기업) | UNECE | 동향분야 | 정책 | 국토교통<br>기술분류 | 도로교통 |
|-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|
|------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|

### □ UNECE WP.29\*는 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차를 허용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 규정 체계를 채택하고 국제 형식승인 기준을 마련

\* UNECE 산하에서 자동차 안전과 자율주행 등 차량 관련 국제 규정을 제정·조화하는 정부 간 협의체

- 운전자의 개입 없이 모든 운전 기능을 수행하는 완전자율주행차의 국제 형식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
  - 운전대가 없는 차량을 포함한 완전자율주행차의 국제 형식승인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차량 설계와 운행 요건을 규정
  - 캐나다, 중국, EU, 일본, 영국,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이 규칙 제정에 참여해 국제적인 적용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간 규제 조화를 추진
-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운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국제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성능 평가 및 검증 체계를 마련
  - 자율주행 시스템은 조향·가속·감속·등화·신호 등 운전엔 필요한 모든 전술적·운영적 기능을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
  - 제조사는 시뮬레이션, 시험장 시험, 실제 도로 주행 등 단계별 검증 절차를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교통규칙 준수 능력을 입증하도록 규정

### □ 제조사의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와 시판 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기존 국제 규칙을 정비해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

- 제조사에 개발부터 시판 후 운영까지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
  - 개발·생산·운용·시판 후 단계까지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, 체계적인 안전관리 절차를 운영하도록 의무화
  - 가상시험을 포함한 시험 환경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시판 이후에도 성능을 지속적으로 점검·보고하도록 규정
- 다양한 운행 환경을 수용하고 기존 국제 규칙을 개정해 완전자율주행차의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
  - 고속도로와 도시 환경 등 다양한 자율주행 운행 환경을 규칙 적용 범위에 포함해 다양한 운행 조건에서의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
  - 기존 약 90개 국제 규칙을 함께 개정해 운전대가 없는 차량에도 기존 형식승인 규정을 적용하고 규제 체계의 일관성 확보

※ 출처 : UNECE(2026.06.24), UNECE adopts first-ever global rules allowing fully autonomous vehicles